무주군, 국비 확보 행정력 집중

황인홍 군수, 환경부·행안부·문체부 방문해 현안사업 반영 요청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무주군의 행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 일행은 오는 20일까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19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는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2026~2030, 총사업비 187억)의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생태교육 및 체험,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행위 제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및 치유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방문한 행정안전부에서는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은하수 무장애 브릿지(보도육교) 조성 사업'(총사업비 30억)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20억)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디나래지원센터(노인 전용 복지공간)' 주변 무주종합복지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군립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연계 활용하기 위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황인홍 군수는 '은하수 무장애브릿지 조성 사업'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은하수 무장애 브릿지(보도육교)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2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 사업'(총사업비 450억)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글로벌 태권도인재양성센터는 태권도 전문 연수 체험시설인 태권도원에 건립하려는 글로벌 태권도 교육·수련센터로, 2026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무주군은 지난 4월 태권도진흥재단, 전북특별자치도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중점사업 추진은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비 확보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물꼬를 트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 50억7000만원 투입 주민 편의시설 확충·수질 보호 총력

진안군은 2025년도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0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환경 규제와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 향상, 오염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일반지원사업 중 간접 지원사업에는 총 6억3,000천만원을 투입, 64개 마을에서 154건의 사업을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직접 지원사업 역시 6억3,000만원 규모로, 수변구역에 포함된 537명의 주민에게 재산 규모에 따라 가계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별 지원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총 38억원(금강수계기금 22억원, 군비 16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친환경 연료(LPG) 보급사업(6억원),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12억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20억원)이다.

특히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5년간 장기 운영돼 온 매립장의 시설 전면 개선을 통하여 용담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광역상수원 수질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은 수몰 이전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정의 달 맞이 '장수 치유의숲' 행사 성료

장수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와룡자연휴양림 내 '장수 치유의숲'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170여 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행사는 어린이날을 전후한 연휴 기간과 주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숲과 자연을 매개로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숲길 걷기 명상, 아로마 테라피, 자연놀이 등 다채로운 오감 체험을 통해 자연의 위로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많아 세대 간 소통과 교감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일부 참가자는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 지원 확대와 같은 실용적인 제안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개선과 확장에 대한 유익한 피드백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서 2년 연속 SA등급 달성

장수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관하는 '2025 전국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0여 일간 진행됐고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차례 최고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8기 공약 이행 현황 자료를 모니터링했다. 1차평가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2차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따라 이뤄졌다. 총점 100점 기준으로 87점 이상 획득 지자체에 최고등급(SA)을 83점 이상 획득 지자체에는 우수등급(A)을 수여한다.

장수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공약 추진실적과 조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사업 전반을 수시로 점검해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왔다.

또한 군민배심원단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온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효했다.

특히 장수군은 2024년 공약이행완료율 67.2%(총 70개 중 47개 사업 완료)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이행완료율(53.5%)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고 미완료된 공약사업들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우리군 최고등급 달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 하나하나에 진정성을 담아 추진해 온 공직자들과 늘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군민 여러분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약 이행으로 장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서 950여명 참가 전국단위 백패킹 대회 열려

진안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국내 대표 전국단위 백패킹 대회 'OTT 파인드 2025 진안'이 950여명의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OTT(On The Trail)'는 지정된 트레일을 따라 1박 2일 동안 백패킹(야영)과 하이킹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걷는 도보 여행 형식의 대회다.

이번 행사는 'Find' 코스를 중심으로 GPS와 QR코드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지정 포인트를 탐색하고, 획득 점수에 따라 경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 접수 참가자 800여 명을 포함해 진행 요원과 안전 관리 인력 등 총 950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OTT 대회 중 최다 인원 운집 기록을 세웠다.

행사는 주천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운일암반일암 인근 진안고원길 코스와 구봉산, 명덕봉 등의 지정 포인트를 찾아 진안의 대표적인 산악관광 트레킹 코스를 따라 펼쳐졌다. 푸른 초원 위에 다채로운 미니 텐트가 들어선 주행사장 주천생태공원은 젊은 백패커들의 열정과 생기로 가득 찼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산물가공센터, 6개 식품유형 HACCP 재인증

진안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생산하는 7개 식품유형 중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6개 품목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재인증을 받은 품목은 △액상차, △고형차, △과채가공품, △인삼음료, △홍삼음료, △기타가공품 등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2028년 8월까지다.

HACCP(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가공·보존·조리·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식품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관한다.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난 2016년 최초로 HACCP 인증을 획득한 이후 3년 주기로 정기 심사를 통과하며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전 생산 공정에는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 설정(Critical Control Points)이 철저히 적용돼 위생과 품질관리가 병행되고 있다.

한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역 농업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적상면,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정비 나서

무주군 적상면이 지역 내 공공서비스 거점시설 정비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적상면행정복지센터, 단풍골 작은 목욕탕, 적상보건지소, 적상면오색단풍이야기센터 등 4곳으로, 해당 면 공무원과 각 시설 직원, 적상면생활개선회 회원 등 지역 주민들이 지난 16일부터 시설 점검과 개선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적상면에 따르면 각 공공시설이 보유한 공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방침으로, 시설 간 접근성 향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행로 정비, △공공시설 주변 작은 쉼터와 화단 등 주민 친화 공간 조성에 힘쓴다. 또한 △시설 외벽에는 벽화를 그려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